

2020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I. '20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년 3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3779-6677)

조사역 김찬원 (02-3779-5709)





<요 약>

I. '20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0.2%, 전기 대비 15.2% 감소

- 2020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85억 달러) 대비 20.3% 감소, 전분기(1,302억 달러) 대비로는 15.2% 감소한 1,104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별 봉쇄 조치** 및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수출액 크게 감소
-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4월(△25.5%), 5월(△23.6%) 수출 감소폭은 확대됐으나, 6월(△10.9%) 경제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며 감소폭 둔화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 대비 1p 감소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수출단가 악화** 등으로 전기대비 하락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6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77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68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68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83

- 산업별로는 전기전자·플랜트/해외건설·문화콘텐츠·선박/해운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채산성·수출물량 악화**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류	플랜트·해건	신재생 에너지	선박	대기업	중소 기업
'20.1Q	68	67	66	72	64	81	78	88	70	73	69
'20.2Q	79	59	62	67	48	63	87	78	76	76	68



Ⅱ. '20년 3분기 수출 전망

3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12.1p(10.2%), 전기 대비 10.1p(8.6%) 하락

- '20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07.3으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12.1p(10.2%) 하락, 전기 대비로도 10.1p(8.6%)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수치의 절대 수준도 낮아 수출 둔화 추세는 계속 유지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월단위 변동성이 큰 가운데, 6월 이후로는 대부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수출액은 지표 수준보다는 상회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7.2	120.2	122.0	123.2	123.7	118.1	119.4	119.3	118.0	117.4	107.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2	3.7	8.3	6.3	5.5	△1.8	△2.1	△3.2	△4.6	△0.6	△ 10.2
전기대비 증감률(%)	1.0	2.6	1.5	1.0	0.4	△4.5	1.2	△0.1	△1.1	△0.6	△ 8.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0.6	△3.5	4.6	△2.0	△0.7	△7.3	△0.3	△1.1	△1.4	4.0	△ 9.6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기 위축 2분기 저점 · 6월 이후 지표 개선세 뚜렷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영향으로 중국은 2월, 미국·유로존 등은 4월 각각 경기 저점을 찍은 영향으로 2분기는 저조했으나 경제 활동 재개로 6월에는 회복세 전환
 -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2010=100)¹⁾ : 147.6('20.1)→139.9(2)→144.5(3)→**142.7(4)**→**146.2(5)**→**148.1(6)**
- WTO의 상품무역지수는 2분기 87.6으로 전년동기 대비 9.0% 하락했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당분간 세계 무역량은 둔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Goods Trade Barometer(WTO, 2010=100) : 96.3('19.2Q)→95.7(3Q)→96.6(4Q)→95.5('20.1Q)→**87.6(2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4월(27.1) 전년동기 대비 47.6%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는 저조(△25.3%)했으나 6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12.8% 상승한 56.4 기록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52.0('20.1)→49.8(2)→42.2(3)→**27.1(4)**→**31.8(5)**→**56.4(6)**



- **가격 경쟁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4.7% 상회한 달러당 1,220.8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 수요 위축으로 가격 경쟁력 효과는 일정 상쇄, 최근 달러화 약세 추세로 환율은 전기 대비 안정화 전망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65.9('19.2Q)→1,193.2(3Q)→1,175.8(4Q)→1,193.6('20.1Q)→**1,220.8(2Q)**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64.3('20.1)→ 1,193.8(2)→ 1,220.1(3)→ **1,225.2(4)→ 1,228.7(5)→ 1,210.0(6)**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는 **3분기부터 하락 전환** 전망, 유가는 4월(20.4\$/bl) 저점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수출 물가 둔화는 당분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추이(2015=100, 달러기준)

: 94.0('20.1)→ 92.5(2)→ 89.1(3)→ 86.8(4)→ 86.9(5)→ 88.6(6)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6.3('19.1Q)→ △8.3(2Q)→ △10.6(3Q)→ △9.6(4Q)→ △8.2('20.1Q)→ △11.1(2Q)

- **D램** 고정가격은 1분기부터 반등을 지속해 5~6월 전년 수준인 3.31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스마트폰 판매 부진,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D램 익스체인지) : 2.84('20.1)→ 2.94(3)→ 3.31(6)→ 3.13(7)→ 2.81('20.10)

- **유가**는 중국 산업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7월말까지 OPEC+ 감산을 연장한 데 힘입어 2분기 대비 상승하겠으나, 8월 이후 감산 규모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54.2(2)→33.7(3)→**20.4(4)→30.5(5)→40.8(6)→43.2(7)**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서버와 PC 수요 증가로 D램 단가 상승이 이어졌으나, 하반기에는 서버 업체들의 이미 확보된 재고 물량 소진, 스마트폰 판매 저하 등의 영향으로 단가 상승세가 중단되고 수요 증가 폭도 상반기 대비 둔화될 전망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41.6 ('20.1)→ 51.2 (2)→ 25.3 (3)→ △0.2 (4)→ 21.1 (5)→ 6.7(6)

- **자동차**는 對중국 부품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은 상반기 대비 개선되겠지만, 자동차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수출은 불확실성 지속



'20년 3분기 수출액, 감소폭 크게 축소된 전년동기 대비 5~6% 하락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도 이어지겠지만,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감소폭을 크게 축소한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 전망
- 3분기에는 대부분의 수출 대상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지표들도 6월 이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사회 봉쇄가 있었던 2분기보다는 수출 감소폭 축소
-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자동차 등 경기 민감 품목들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회복세를 보여온 반도체 수요가 다시 둔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 위축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하락폭은 확대 가능

※ 월간 수출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 : (20.1)△6.6 → (2) 3.5 → (3)△1.6 → (4)△25.5 → (5)△23.6 → (6)△10.9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59.1%),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9.9%),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교역위축'(22.4%) 순으로 응답

-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59.1%)'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전기 대비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9.9%)',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인한 교역 위축(22.4%)',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7.5%)' 응답이 각각 5.7%, 8.1%, 2.6% 증가
- (산업별) 문화콘텐츠(25.0%), 섬유류(25.8%), 해운(40.0%) 등 업종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교역위축' 응답률 상승, 선박(44.4%), 전기전자(34.1%), 철강/비철금속(36.9%)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 상승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응답



I. '20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0.2%, 전기 대비 15.2% 감소

- 2020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85억 달러) 대비 20.3% 감소, 전분기(1,302억 달러) 대비로는 15.2% 감소한 1,104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별 봉쇄 조치** 및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수출액 크게 감소
-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제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4월(△25.5%), 5월(△23.6%) 수출 감소폭은 확대됐으나, 6월(△10.9%)에는 경제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며 감소폭 둔화
- 우리나라 최대 수출 지역인 **對중국 수출**이 6월 들어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유가 관련 품목의 감소세도 둔화
-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2,407억 달러**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액	1,451	1,516	1,536	1,546	1,327	1,385	1,347	1,364	1,302	1,104
증가율(%)	9.8	3.1	1.7	7.7	△8.5	△8.7	△12.3	△11.8	△1.8	△20.3
수출물가지수	106.8	107.2	107.0	103.9	100.1	98.4	95.7	93.9	91.8	87.4
증가율(%)	5.7	5.5	4.2	△1.0	△6.3	△8.2	△10.6	△9.6	△8.2	△11.2
수입물가지수	109.3	113.1	112.7	110.1	107.8	108.0	104.7	103.8	99.6	91.0
증가율(%)	8.0	12.7	11.7	4.7	△1.5	△4.5	△7.1	△5.7	△7.6	△15.6
수출물량지수	107.4	113.5	114.3	115.6	104.7	110.2	111.0	115.5	110.7	99.1
증가율(%)	5.2	8.2	4.1	7.0	△2.5	△2.9	△2.9	△0.1	5.7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액은 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5=100)



코로나19 · 유가 하락으로 주력 품목 수출 부진 지속, 6월 이후 소폭 회복세

- **반도체(△3.0%)**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 및 재택근무·원격교육 확대 영향으로 5월까지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업황 부진, 수요 강세 둔화 등도 이어지면서 2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 '20년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IDC) :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 D램 고정가격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5월 이후 두 달 연속 보합세로 전환, 현물 가격은 이미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고정가격도 하락 전환 전망
 - ※ D램 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6.0('19.1)→2.84('20.1)→2.94(3)→**3.29(4)→3.31(5)→3.31(6)**
- **석유화학(△27.4%)**과 **석유제품(△59.8%)** 수출은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4월)까지 하락해 부진 지속, 유가가 5월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며 수출 감소폭은 축소 중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70.9('19.4)→64.3('20.1)→54.2(2)→33.7(3)→**20.4(4)→30.5(5)→40.8(6)**
- **자동차(△41.4%)**는 주요국 공장과 딜러 매장이 5~6월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현지 재고 물량 소진이 늦춰짐에 따라 수출 감소 지속, **전기차 수출은 호조세** 유지
- **선박(△30.4%)**은 최근 코로나19로 선주사들이 완공된 선박 인도 연기 요청 등이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 현상 발생
- **일반기계(△18.7%)**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기 둔화, 건설업 등 전방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축됐으나 중국내 인프라 사업 확대 및 건설 경기 회복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 축소 중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8. 2/4	3/4	4/4	'19. 1/4	2/4	3/4	4/4	'20. 1/4	2/4	4월	5월	6월
반도체	40.2	30.3	8.3	△21.4	△23.6	△30.2	△27.6	0.6	△3.0	△14.9	7.0	△0.03
석유화학	18.6	11.0	10.9	△10.3	△15.9	△16.4	△16.2	△13.1	△27.4	△33.9	△33.9	△11.8
일반기계	8.1	10.1	13.4	0.5	0.4	△4.3	△3.6	△0.3	△18.7	△20.1	△27.8	△6.9
무선통신기기	△18.1	△16.9	△31.5	△27.2	△21.0	△16.7	△3.7	△1.3	△22.6	△33.4	△22.2	△11.6
디스플레이	△16.0	△2.1	△6.8	△11.6	△13.8	△19.8	△21.1	△20.7	△28.5	△39.1	△29.7	△15.9
자동차	△6.6	△13.1	17.7	4.7	9.1	10.3	△1.4	△11.6	△41.4	△36.3	△54.2	△33.2
선박류	△76.9	△68.3	2.0	△24.6	49.3	39.1	△41.0	8.9	△30.4	△60.9	35.9	△27.9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지역 수출 부진 지속, 중국 수출은 플러스 전환 회복

- **중국 수출(△4.6%)**은 5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중국내 생산이 회복되고,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며 6월에는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
- **미국 수출(△17.4%)**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스마트폰 판매 감소, 항공 교통 수요 급감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
- **아세안(△25.3%)**은 교통 감소 등으로 수송유 등 석유제품 수요 감소,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일반기계 수출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6월 들어 소폭 회복세
- **EU(△19.9%)**는 락다운 장기화로 자동차 및 차부품 수요 하락 등이 이어지며 수출 부진 지속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8. 2/4	3/4	4/4	'19. 1/4	2/4	3/4	4/4	'20. 1/4	2/4	4월	5월	6월
중국	27.5	17.8	△0.5	△17.3	△16.8	△20.2	△9.4	△8.4	△4.6	△18.2	△2.4	9.5
미국	5.6	△1.0	23.5	12.9	2.3	△3.2	△5.9	5.5	△17.4	△14.2	△29.2	△8.3
일본	14.1	9.4	15.9	△6.0	△6.6	△4.1	△10.4	0.1	△20.2	△12.6	△29.0	△17.8
아세안	△0.3	△1.7	10.7	△2.4	△4.7	0.5	△12.9	3.9	△25.3	△33.3	△30.1	△10.8
EU	△7.4	△3.7	27.6	△3.8	△5.9	△0.9	△21.3	△3.6	△19.9	△20.1	△22.5	△17.0
베트남	△11.9	0.7	4.3	△3.6	0.0	5.7	△5.6	3.0	△20.1	△35.3	△20.1	△2.3
중동	△6.1	△5.3	△21.8	△26.4	△25.6	△23.9	6.9	△0.5	△22.6	△20.6	△25.5	△22.0
CIS	△4.6	18.0	54.5	31.3	33.5	20.4	14.1	3.7	△27.1	△42.1	△35.2	△2.5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물량은 자동차·석유제품 중심으로 부진, 수출 물가는 유가 영향으로 하락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5월 저점 뒤 6월 소폭 반등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10.0% 감소**
- 반도체(8.9%) 물량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탄 및 석유제품(△12.0%) 및 자동차(△44.4%)는 감소폭 확대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 △2.9('19.2Q)→△2.9(3Q)→△0.2(4Q)→5.6('20.1Q)→**△10.0(2Q)**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기 대비, %) : 5.2('19.2Q)→ 0.7(3Q) →4.1(4Q)→△4.3('20.1Q)→**△10.3(2Q)**

※ 자동차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 4.9('19.2Q)→ 7.4(3Q)→△1.2(4Q)→△6.5('20.1Q)→**△44.4(2Q)**



- 수출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제품 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53.1% 하락하는 등 달러화 기준으로는 **11.1% 하락**하며 7분기 연속 하락세 유지, 원화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달러 기준보다 **하락폭 축소(△7.0%)**
 - 원화기준 반도체 수출물가(0.2%↑)는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 운송장비(3.0%↑), 기계장비(3.1%↑) 등도 상승세 유지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65.9('19.2Q)→1,193.2(3Q)→1,175.8(4Q)→1,193.6('20.1Q)→**1,220.8(2Q)**
 - 수입물가지수도 유가가 전년동기 대비 56% 하락한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5.6% 하락**, 원화기준은 **11.7% 하락**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9.7('19.2Q) → 61.3(3Q) → 62.1(4Q) → 50.4('20.1Q)→ **30.7(2Q)**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 업황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 대비 1p 하락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수출단가 악화 등으로 전기 대비 하락
 - 2009년 1분기 7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70)보다도 1p 낮은 69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생산원가 평가지수(원화기준, 103) 하락 영향보다, 수출단가 평가지수(원화기준, 97) 악화 영향이 더 커, 이를 종합한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대비 3p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기 수준을 유지한 68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기 수준을 유지한 68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 수준을 유지한 83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6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77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68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68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83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 업황

기업규모별 : 수출업황지수는 전기 대비 대기업 3p 상승, 중소기업 1p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은 8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4p 하락하였고, 수출물량은 대기업은 7p 상승, 중소기업은 1p 하락

산업별 :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하락

- 수출채산성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기전자,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컨텐츠, 해운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악화되었고, 수출물량 또한 위 4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

지역별 : 중국·동남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

- 중국 지역에서는 생산원가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상승하며 수출업황이 개선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 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0. 1/4	'20. 2/4	'20. 1/4	'20. 2/4	'20. 1/4	'20. 2/4
전 체		70	69	80	77	68	68
규모	대 기 업	73	76	81	89	75	82
	중 소 기 업	69	68	79	75	67	66
산업	전 기 전 자	68	79	74	85	67	76
	기 계 류	67	59	82	71	64	59
	철 강 · 비 철 금 속	66	62	79	72	67	62
	석 유 화 학	72	67	81	75	72	65
	자 동 차	64	48	80	60	60	46
	섬 유 류	81	63	79	68	69	68
	플 란 트 · 해 외 건 설	78	87	87	98	78	87
	신 재 생 에 너 지	88	78	81	78	84	70
	선 박	70	76	88	80	70	70
	문 화 컨 텐 츠	83	100	83	92	83	104
해 운	65	90	69	93	65	90	
수출 지역	미 국 (북 미)	73	67	84	77	69	67
	중 국	71	80	79	84	69	79
	일 본	63	62	77	73	61	63
	유 로 존	67	55	82	63	68	52
	동 남 아	68	74	74	79	70	72
	중 남 미	83	64	94	68	67	50
	중 동	69	67	67	78	67	67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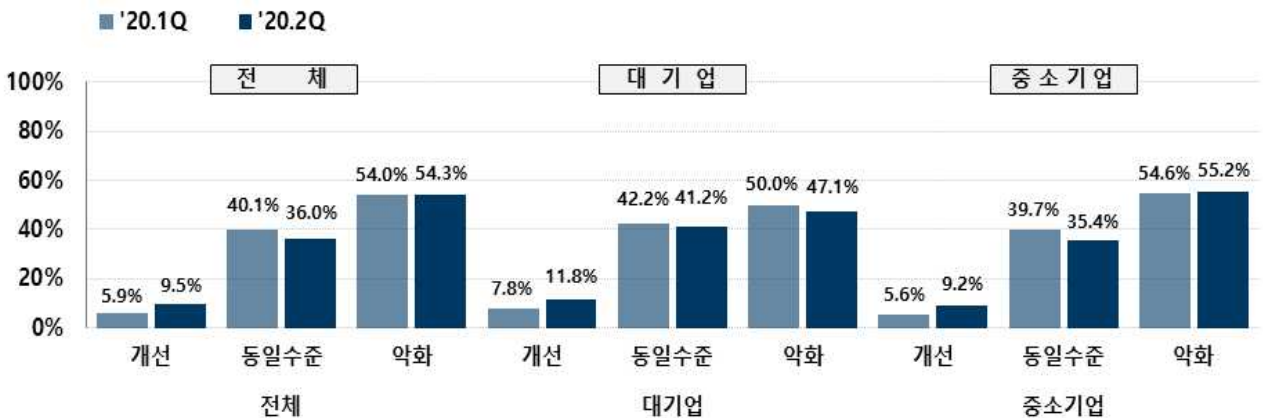
가. 수출 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455개사 대상)

수출 업황, 전기 대비 '악화' 54.3% · '개선' 9.5%로 악화 우세

- 전기 대비 수출업황 '개선' 응답 비율은 3.6%p 증가한 가운데, '동일수준'과 '악화' 응답 비율은 각각 4.1%p 감소, 0.3%p 증가
- (규모별) 대기업의 '개선' 및 '악화' 응답 비율은 각각 4.0%p 증가, 2.9%p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또한 '개선' 응답 비율이 3.6%p 증가한 반면, '악화' 응답은 0.6%p 감소

2분기 수출 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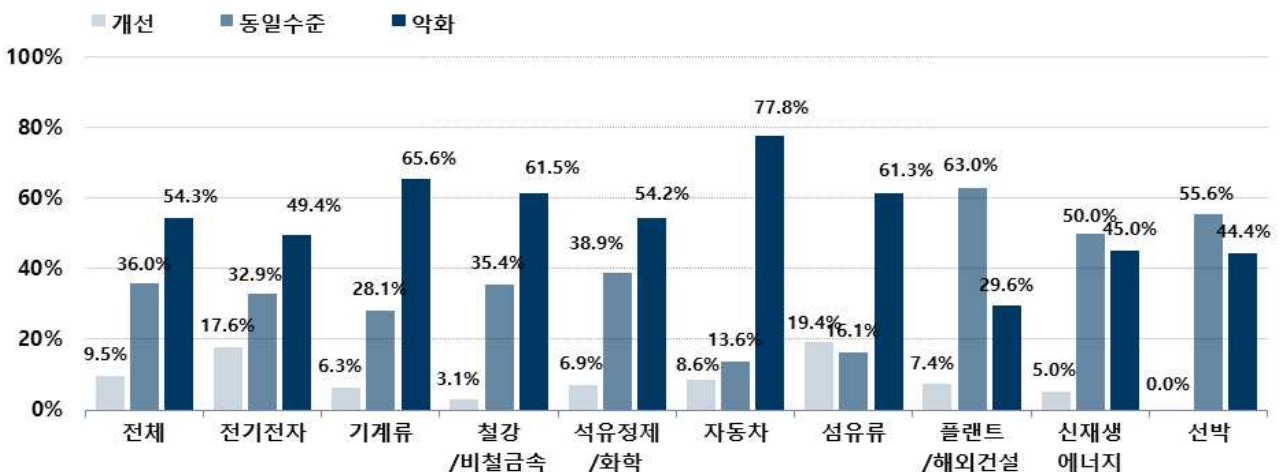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산업별) 해운, 문화컨텐츠 등은 '개선' 비중이 전기 대비 각각 14.6%p, 8.3%p 증가, 석유류, 자동차 등은 '악화' 비중이 전기 대비 각각 23.2%p, 12.5%p 증가하는 등 산업별 업황 체감 차이 존재

2분기 수출 업황 평가 : 산업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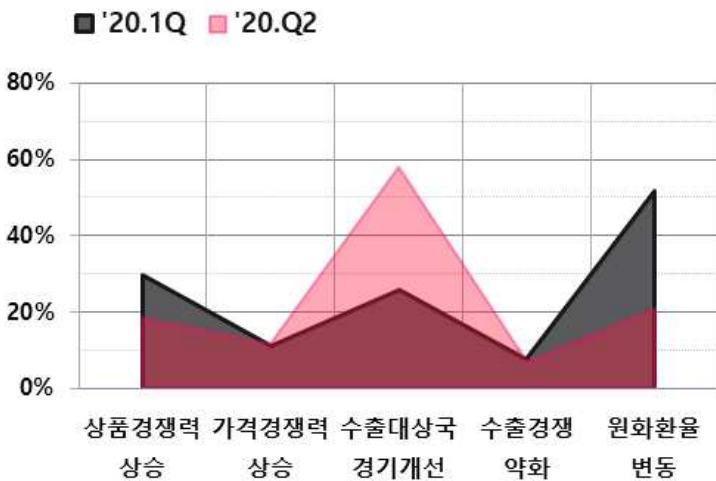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3개사 대상)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8.1%), '원화환율 변동'(20.9%) 최다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8.1%)과 '원화환율 변동'(20.9%)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기 대비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응답률이 32.2%p 상승한 반면, '원화환율 변동' 응답률은 30.9%p 하락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개선’ 응답 기업 수 43,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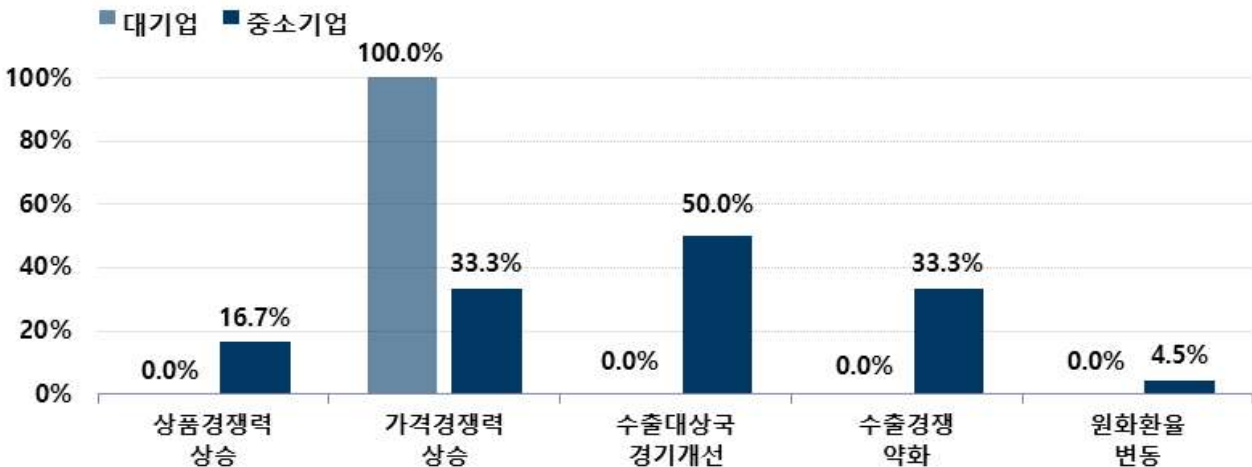


(%)	'20.1Q	'20.2Q
상품경쟁력 상승	29.6%	18.6%
가격경쟁력 상승	11.1%	11.6%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25.9%	58.1%
수출경쟁 약화	7.4%	7.0%
원화환율 변동	51.9%	20.9%

- (규모별) 업황 개선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승'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 대상국 경기 개선'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기업 규모별

(‘개선’ 응답 기업 수 43,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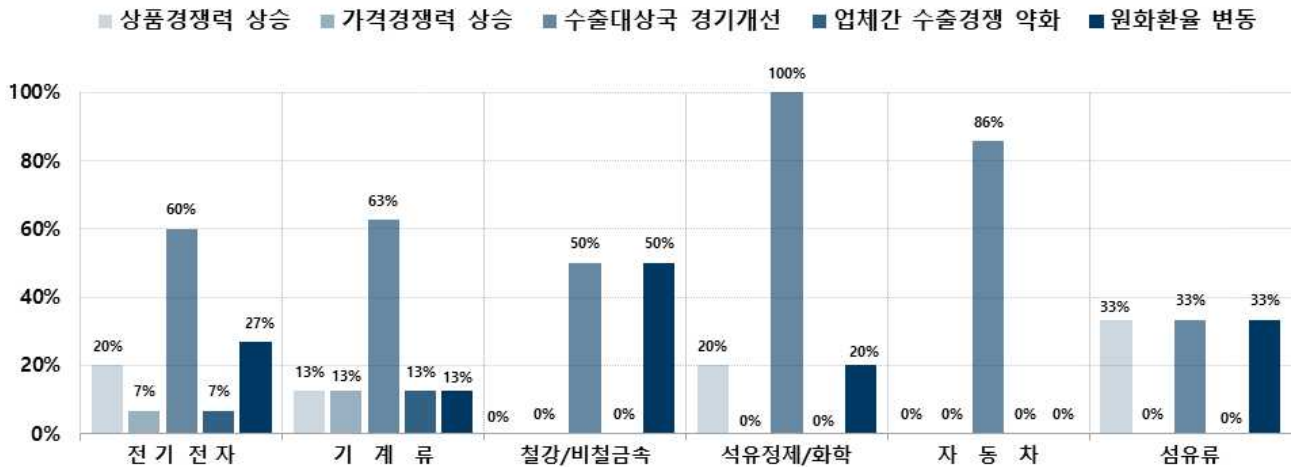




- (산업별) 석유정제/화학, 전기전자 등 업종에서 업황 개선의 주요 원인을 모든 업종에서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선택
 - '원화환율 변동'을 높게 응답한 산업은 플랜트/해외건설(50%), 철강/비철금속(50%)
 - '상품 경쟁력 상승' 응답비중이 높은 산업은 문화컨텐츠(50%), 섬유류(33.3%), 전기전자(20%)
 - '코로나19 여파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의 경우 철강/비철금속(50%), 섬유류(16.7%), 기계류(1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산업별

('개선' 응답 기업 수 43, 복수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 경쟁 약 화	원화환율 변 동	신 제 품 개 발	코로나19 로 인 한 수요증가
전 체		18.6%	11.6%	58.1%	7.0%	20.9%	3.7%	7.0%
규 모	대 기 업	0.0%	100.0%	0.0%	0.0%	0.0%	0.0%	0.0%
	중 소 기 업	16.7%	33.3%	50.0%	0.0%	33.3%	4.5%	0.0%
산 업	전 기 전 자	20.0%	6.7%	60.0%	6.7%	26.7%	0.0%	0.0%
	기 계 류	12.5%	12.5%	62.5%	12.5%	12.5%	14.3%	12.5%
	철 강	0.0%	0.0%	50.0%	0.0%	50.0%	0.0%	50.0%
	비 철 금 속	0.0%	0.0%	50.0%	0.0%	50.0%	0.0%	50.0%
	석 유 화 학	20.0%	0.0%	100.0%	0.0%	20.0%	0.0%	0.0%
	자 동 차	0.0%	0.0%	85.7%	0.0%	0.0%	33.3%	0.0%
	섬 유 류	33.3%	0.0%	33.3%	0.0%	33.3%	0.0%	16.7%
	플 랜 트	0.0%	0.0%	50.0%	0.0%	50.0%	0.0%	0.0%
	해 외 건 설	0.0%	0.0%	50.0%	0.0%	50.0%	0.0%	0.0%
신 재 생 에 너 지	0.0%	0.0%	100.0%	0.0%	0.0%	0.0%	0.0%	
문 화 컨 텐 츠	50.0%	50.0%	50.0%	50.0%	0.0%	0.0%	0.0%	
수 출 지 역	미 국 (북 미)	18.9%	8.1%	59.5%	8.1%	18.9%	0.0%	8.1%
	중 국	11.1%	5.6%	55.6%	0.0%	22.2%	0.0%	5.6%
	일 본	30.8%	23.1%	53.8%	15.4%	15.4%	0.0%	7.7%
	유 로 존	50.0%	0.0%	0.0%	0.0%	100.0%	20.0%	0.0%
	동 남 아	0.0%	0.0%	50.0%	0.0%	0.0%	0.0%	50.0%
	중 남 미	0.0%	0.0%	100.0%	20.0%	20.0%	0.0%	0.0%
	중 동	100.0%	100.0%	0.0%	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3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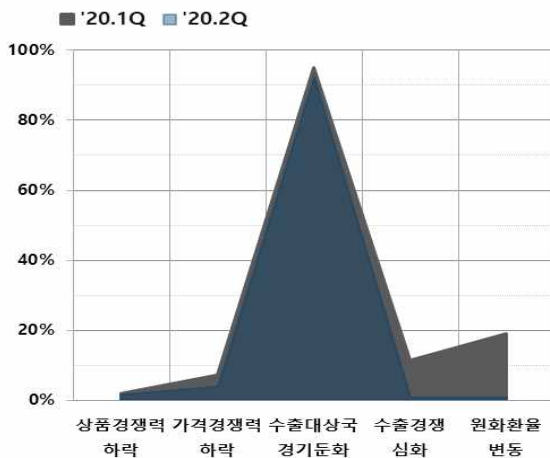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45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247개사 대상)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92.3%), '가격경쟁력 하락'(4.0%) 최다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92.3%)', '가격경쟁력 하락(4.0%)', '상품경쟁력 하락(1.6%)'순 응답
- 전기대비 '원화환율 변동'는 18.4%p 감소, '수출경쟁 심화'는 10.6%p 감소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응답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악화’ 응답 기업 수 247,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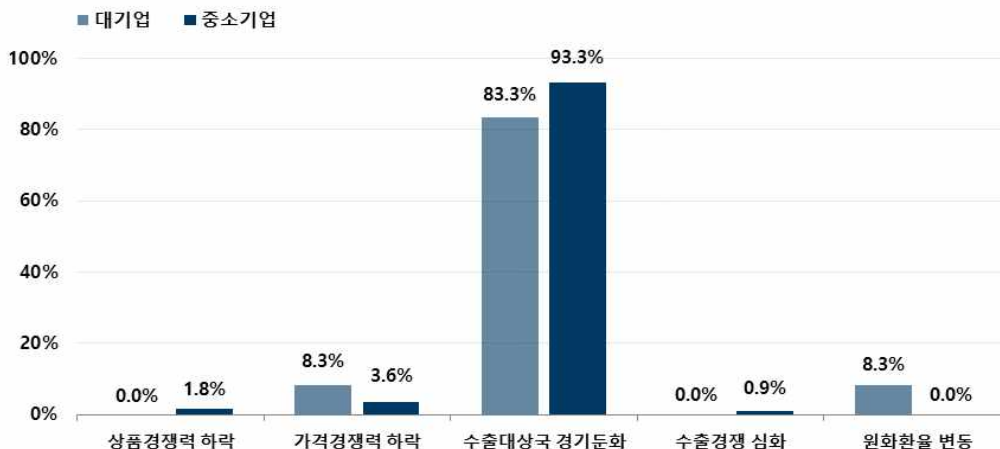


(%)	'20.1Q	'20.2Q
상품경쟁력 하락	2.0%	1.6%
가격경쟁력 하락	7.3%	4.0%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95.1%	92.3%
수출경쟁 심화	11.4%	0.8%
원화환율 변동	19.2%	0.8%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선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응답률이 각각 전기대비 13.5%p, 1.6%p 감소한 반면, '가격경쟁력 하락' 응답률은 각각 전기대비 8.3%p 증가, 4.9%p 감소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기업규모별

(‘악화’ 응답 기업 수 247, 복수응답, 단위 :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동	원재료 구매차질
전체		1.6%	4.0%	92.3%	0.8%	0.8%	0.4%
규모	대기업	0.0%	8.3%	83.3%	0.0%	8.3%	0.0%
	중소기업	1.8%	3.6%	93.3%	0.9%	0.0%	0.4%
산업	전기전자	0.0%	7.1%	90.5%	2.4%	0.0%	0.0%
	기계류	1.2%	3.6%	95.2%	0.0%	0.0%	0.0%
	철강·비철금속	2.5%	5.0%	90.0%	2.5%	0.0%	0.0%
	석유화학	0.0%	5.1%	92.3%	0.0%	2.6%	0.0%
	자동차	0.0%	0.0%	100.0%	0.0%	0.0%	0.0%
	섬유류	5.3%	0.0%	94.7%	0.0%	0.0%	0.0%
	플랜트·해외건설	0.0%	0.0%	100.0%	0.0%	0.0%	0.0%
	신재생에너지	22.2%	0.0%	66.7%	0.0%	0.0%	11.1%
	선박	0.0%	8.3%	83.3%	0.0%	0.0%	8.3%
	문화콘텐츠	0.0%	0.0%	100.0%	0.0%	0.0%	0.0%
	해운	0.0%	0.0%	100.0%	0.0%	0.0%	0.0%
수출 지역	미국(북미)	1.4%	2.7%	95.9%	0.0%	0.0%	0.0%
	중국	2.3%	4.7%	88.4%	4.7%	0.0%	0.0%
	일본	0.0%	9.7%	83.9%	0.0%	3.2%	3.2%
	유로존	2.5%	0.0%	97.5%	0.0%	0.0%	0.0%
	동남아	0.0%	9.4%	87.5%	0.0%	3.1%	0.0%
	중남미	0.0%	0.0%	100.0%	0.0%	0.0%	0.0%
	중동	11.1%	0.0%	88.9%	0.0%	0.0%	0.0%

주 : 전체 설문 45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24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Ⅱ. '20년 3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3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12.1p(10.2%), 전기 대비 10.1p(8.6%) 하락

- '20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07.3으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12.1p(10.2%) 하락, 전기 대비로도 10.1p(8.6%)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수치의 절대 수준도 낮아 수출 둔화 추세는 계속 유지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월단위 변동성이 큰 가운데, 6월 이후로는 대부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수출액은 지표 수준보다는 상회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7.2	120.2	122.0	123.2	123.7	118.1	119.4	119.3	118.0	117.4	107.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2	3.7	8.3	6.3	5.5	△1.8	△2.1	△3.2	△4.6	△0.6	△ 10.2
전기대비 증감률(%)	1.0	2.6	1.5	1.0	0.4	△4.5	1.2	△0.1	△1.1	△0.6	△ 8.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0.6	△3.5	4.6	△2.0	△0.7	△7.3	△0.3	△1.1	△1.4	4.0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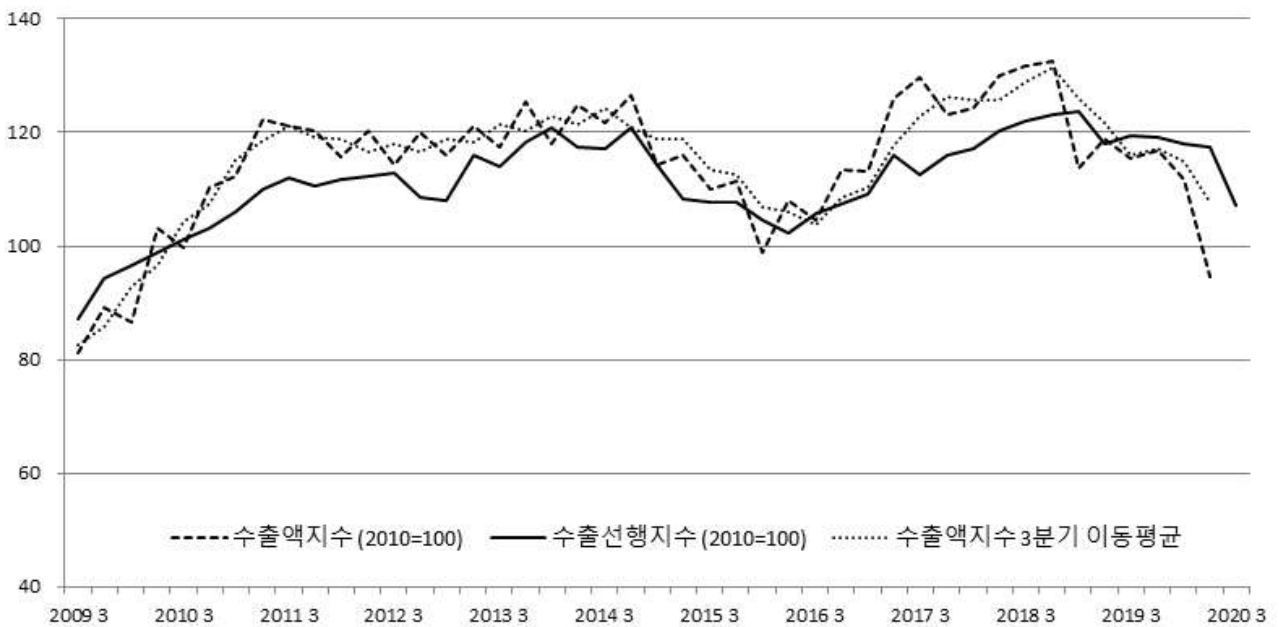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기 위축 2분기 저점 · 6월 이후 지표 개선세 뚜렷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영향으로 중국은 2월, 미국·유로존 등은 4월 각각 경기 저점을 찍은 영향으로 2분기는 저조했으나 경제 활동 재개로 6월에는 회복세 전환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2010=100)²⁾ : 146.3('19.3Q)→147.4(4Q)→144.1('20.1Q)→**145.8(2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월) : 147.6('20.1)→139.9(2)→144.5(3)→**142.7(4)→146.2(5)→148.1(6)**

- WTO의 상품무역지수는 2분기 87.6으로 전년동기 대비 9.0% 하락했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당분간 세계 무역량은 둔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Goods Trade Barometer(WTO, 2010=100) : 96.3('19.2Q)→95.7(3Q)→96.6(4Q)→95.5('20.1Q)→**87.6(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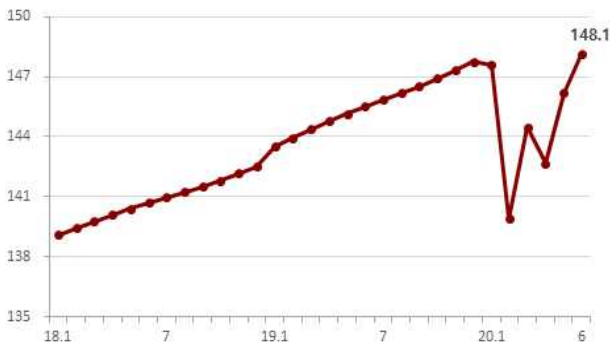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4월(27.1) 전년동기 대비 47.6%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는 저조(△25.3%)했으나 6월에는 크게 반등해 전년동기 대비 12.8% 상승한 56.4 기록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51.5('19.2Q)→48.4(3Q)→47.7(4Q)→48.0('20.1Q)→**38.4(2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2.0('20.1)→49.8(2)→42.2(3)→**27.1(4)→31.8(5)→5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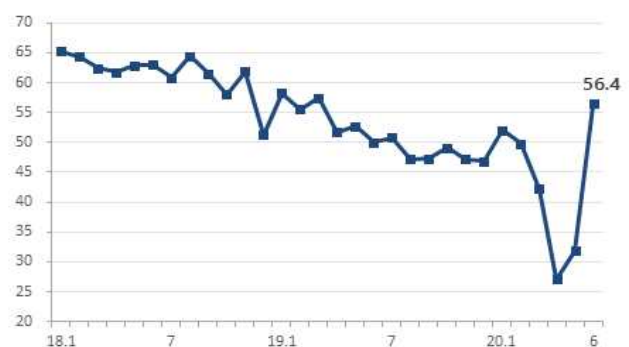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과 3~6개월의 선행성 나타냄.

수출 대상국 경기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성장률 반영)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유가 하락 및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 전년동기대비 52.2%, 2분기 전체로는 44.2%나 하락하는 등 크게 위축됐으나, 6월 소폭 반등하며 감소세 축소 전환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103.4('19.2Q)→99.4(3Q)→96.1(4Q)→97.3('20.1Q)→**57.7(2Q)**

※ 수출용 수입액지수(월): 106.5('20.1)→95.9(2)→89.4(3)→**67.8(4)→50.7(5)→54.7(6)**

- 가격 경쟁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4.7% 상회한 달러당 1,220.8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 수요 위축 심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 효과는 일정 상쇄, 최근 달러화 약세 추세로 환율은 전기 대비 안정화 전망

2) GDP 성장률을 반영한 경기 지수 기준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65.9('19.2Q)→1,193.2(3Q)→1,175.8(4Q)→1,193.6('20.1Q)→**1,220.8(2Q)**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64.3('20.1)→ 1,193.8(2)→ 1,220.1(3)→ **1,225.2(4)→ 1,228.7(5)→ 1,210.0(6)**

- **실질실효환율*** : 코로나 확산 공포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5월 원화의 실질 가치(104.8)도 201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2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2.9%, 전기 대비 0.7% 하락**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상승하면 통화가치 고평가, 하락하면 통화가치 저평가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08.4('19.2Q) → 106.3(3Q) → 107.4(4Q) → 106.0('20.1Q) → **105.3(2Q)**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는 3분기부터 하락 전환 전망, 유가는 4월(20.4\$/bl) 저점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수출 물가 둔화는 당분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추이(2015=100, 달러기준)

: 94.0('20.1)→ 92.5(2)→ 89.1(3)→ 86.8(4)→ 86.9(5)→ 88.6(6)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6.3('19.1Q)→ △8.3(2Q)→ △10.6(3Q)→ △9.6(4Q)→ △8.2('20.1Q)→ △11.1(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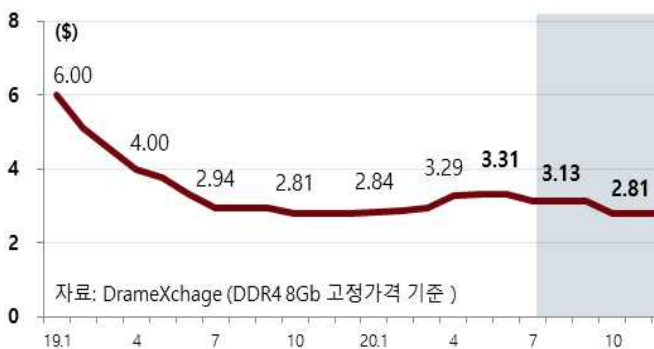
- **D램 고정가격**은 1분기부터 반등을 지속해 5~6월 전년 수준인 3.31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판매 부진,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D램 익스체인지) : 2.84('20.1)→ 2.94(3)→ 3.31(6)→ 3.13(7)→ 2.81('20.10)

- **유가**는 중국 산업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7월말까지 OPEC+ 감산을 연장한 데 힘입어 2분기 대비 상승하겠으나, 8월 이후 감산 규모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54.2(2)→33.7(3)→**20.4(4)→30.5(5)→40.8(6)→43.2(7)**

D램 가격 전망



자료 : DrameXchage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서버와 PC 수요 증가로 D램 단가 상승이 이어졌으나, 하반기에는 서버 업체들의 이미 확보된 재고 물량 소진, 스마트폰 판매 저하 등의 영향으로 단가 상승세가 중단되고 수요 증가 폭도 상반기 대비 둔화될 전망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41.6 (20.1)→ 51.2 (2)→ 25.3 (3)→ △0.2 (4)→ 21.1 (5)→ 6.7(6)

- **자동차**는 對중국 부품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은 상반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동차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수출은 불확실성 지속

20년 3분기 수출액, 감소폭 크게 축소된 전년동기 대비 5~6% 하락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도** 이어지겠지만,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감소폭을 크게 축소**한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 전망
- 3분기에는 대부분의 수출 대상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지표들도 6월 이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사회 봉쇄가 있었던 2분기보다는 **수출 감소폭 축소**
-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자동차 등 경기 민감 품목들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회복세를 보여온 반도체 수요가 다시 둔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 위축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하락폭은 확대 가능

※ 월간 수출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 : (20.1)△6.6 → (2) 3.5 → (3)△1.6 → (4)△25.5 → (5)△23.6 → (6)△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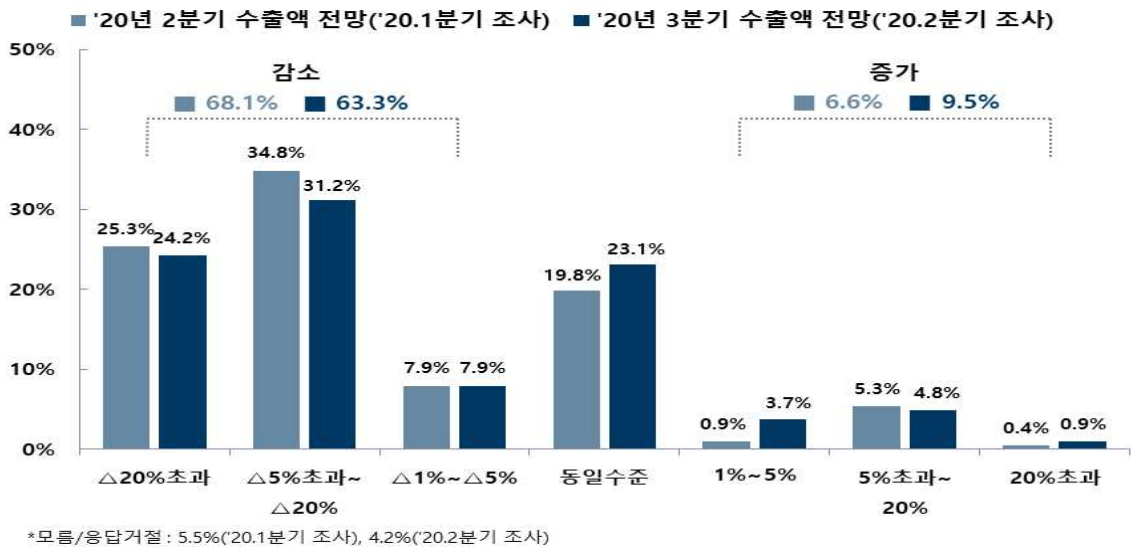
2. 수출기업 3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63.3%, '증가' 전망 9.5%

- 산업 전반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이 63.3%인 반면, '수출액 증가' 전망은 9.5%에 그쳐 수출액 감소 전망이 우세한 한편, '수출액 감소' 전망은 전기 대비 4.8%p 감소, '수출액 증가' 전망 비중은 전기 대비 2.8%p 증가

'20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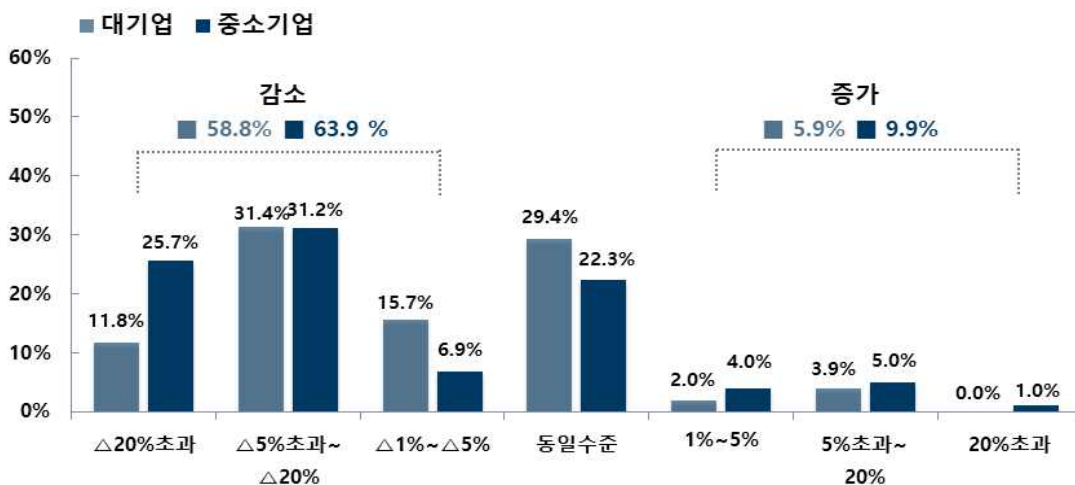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소' 응답이 각각 58.8%, 63.9%, 비율은 각각 전기 대비 8.4%p, 4.3%p 감소

'20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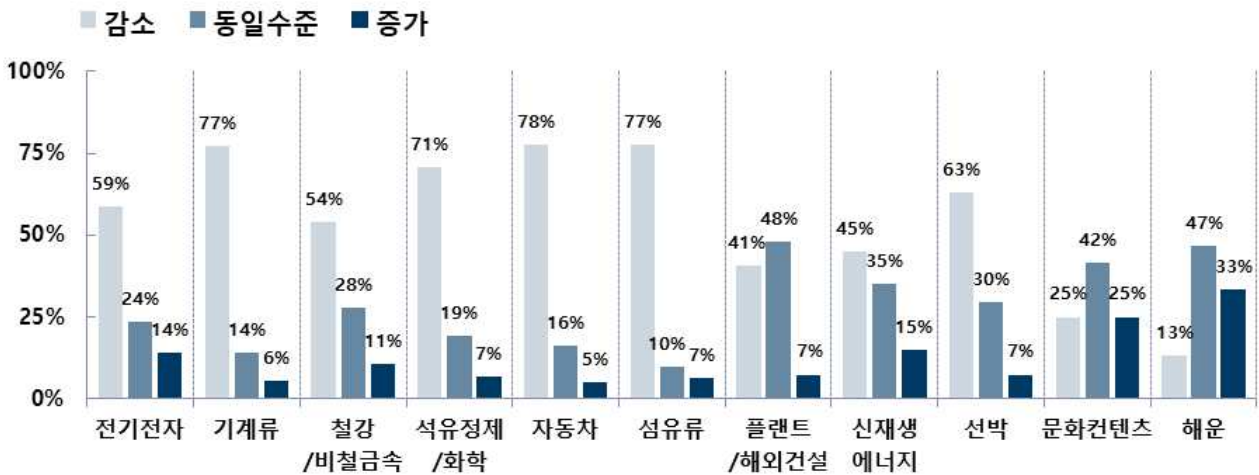




- (산업별)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컨텐츠, 해운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유지' 전망이 우세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감소' 전망이 우세
- 해운(33.3%), 문화컨텐츠(25%), 신재생에너지(15.0%) 등은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20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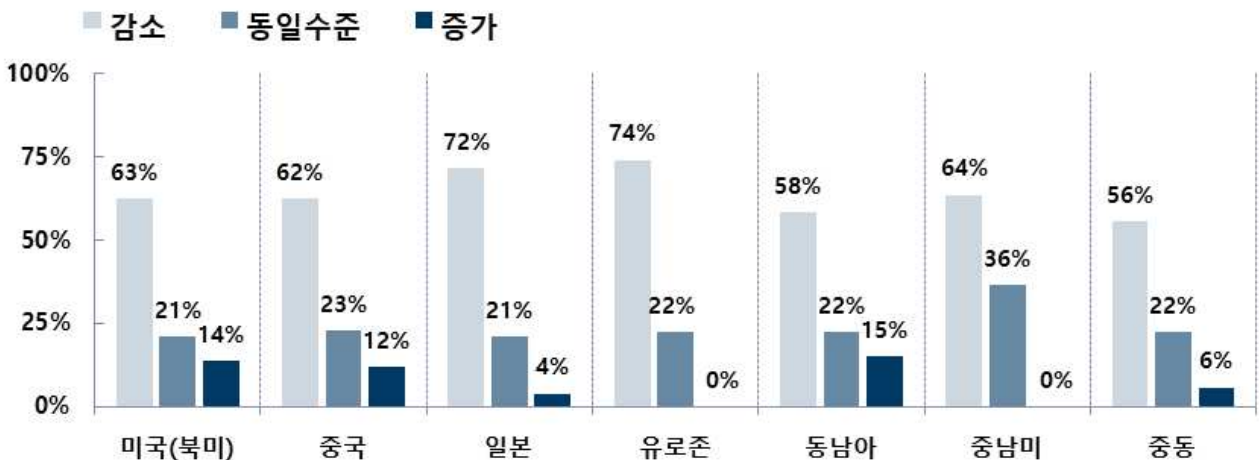


주 : 모름/거절 제외

- (지역별) 미국, 중국 등 모든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우세
- 중남미, 중동은 '감소' 응답률이 각각 25.3%p, 11.1%p 감소하였으며, 동남아는 '증가' 응답률이 12.2% 증가

'20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주 : 모름/거절 제외



'20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 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24.2%	31.2%	7.9%	23.1%	3.7%	4.8%	0.9%
규 모	대 기 업	11.8%	31.4%	15.7%	29.4%	2.0%	3.9%	0.0%
	중 소 기 업	25.7%	31.2%	6.9%	22.3%	4.0%	5.0%	1.0%
산 업	전 기 전 자	23.5%	27.1%	8.2%	23.5%	5.9%	8.2%	0.0%
	기 계 류	28.9%	39.8%	8.6%	14.1%	3.1%	1.6%	0.8%
	철강·비철금속	20.0%	26.2%	7.7%	27.7%	3.1%	6.2%	1.5%
	석 유 화 학	20.8%	43.1%	6.9%	19.4%	4.2%	2.8%	0.0%
	자 동 차	33.3%	39.5%	4.9%	16.0%	2.5%	2.5%	0.0%
	섬 유 류	48.4%	25.8%	3.2%	9.7%	6.5%	0.0%	0.0%
	플랜트·해외건설	11.1%	14.8%	14.8%	48.1%	3.7%	3.7%	0.0%
	신 재생 에 너 지	15.0%	25.0%	5.0%	35.0%	0.0%	15.0%	0.0%
	선 박	14.8%	33.3%	14.8%	29.6%	3.7%	3.7%	0.0%
	문 화 컨 텐 츠	8.3%	8.3%	8.3%	41.7%	0.0%	16.7%	8.3%
	해 운	0.0%	0.0%	13.3%	46.7%	6.7%	20.0%	6.7%
수출 지역	미 국 (북 미)	28.5%	30.1%	4.1%	21.1%	5.7%	8.1%	0.0%
	중 국	15.8%	36.6%	9.9%	22.8%	4.0%	5.0%	3.0%
	일 본	24.5%	30.2%	17.0%	20.8%	0.0%	3.8%	0.0%
	유 로 존	34.5%	32.8%	6.9%	22.4%	0.0%	0.0%	0.0%
	동 남 아	17.9%	28.4%	11.9%	22.4%	7.5%	6.0%	1.5%
	중 남 미	18.2%	45.5%	0.0%	36.4%	0.0%	0.0%	0.0%
	중 동	27.8%	27.8%	0.0%	22.2%	0.0%	5.6%	0.0%

주 : 총 455개사 <모름/거절(19개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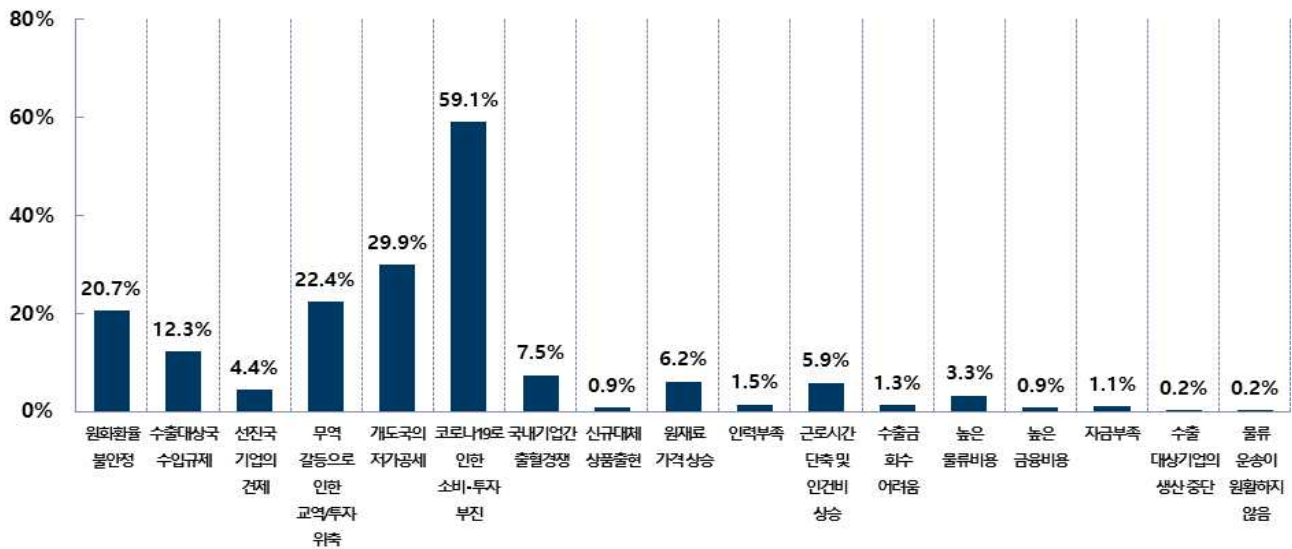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59.1%)’,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9.9%)’,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교역위축(22.4%)’ 순으로 응답

-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59.1%)’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전기대비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9.9%)’,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인한 교역 위축(22.4%)’,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7.5%)’ 응답이 각각 5.7%, 8.1%, 2.6% 증가
- ‘원화환율 불안정(20.7%)’,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59.1%)’ 응답 비율은 각각 11.9%, 7.2% 감소

‘20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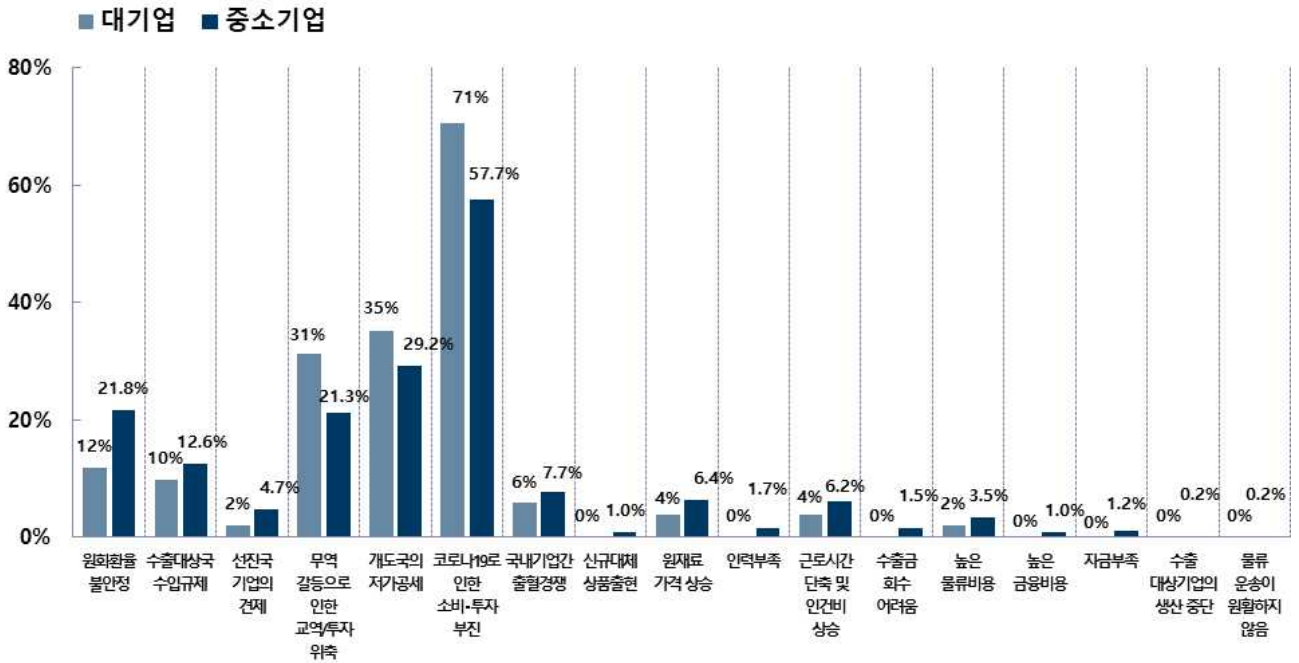


- (산업별) 문화콘텐츠(25.0%), 섬유류(25.8%), 해운(40.0%) 등 업종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교역 위축’ 응답률 상승, 선박(44.4%), 전기전자(34.1%), 철강/비철금속(36.9%)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 상승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응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 응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0.6%, 57.7%
 -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19.5%p ↓), 중소기업(11.0%p ↓) 모두 감소한 반면,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인한 교역위축’ 응답률은 대기업(17.3%p ↑), 중소기업(6.9%p ↑) 모두 증가



'20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 (고관세)	선진국 기업의 견제	무역갈등 여파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코로나19 여파	국내기업 출혈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전 체	20.7%	12.3%	4.4%	22.4%	29.9%	59.1%	7.5%	6.2%	
규 모	대 기 업	11.8%	9.8%	2.0%	31.4%	35.3%	70.6%	5.9%	3.9%
	중 소 기 업	21.8%	12.6%	4.7%	21.3%	29.2%	57.7%	7.7%	6.4%
산 업	전 기 전 자	16.5%	5.9%	3.5%	22.4%	34.1%	63.5%	4.7%	9.4%
	기 계 류	20.3%	8.6%	7.8%	23.4%	27.3%	60.9%	10.2%	4.7%
	철 강 · 비 철 금 속	18.5%	21.5%	1.5%	21.5%	36.9%	60.0%	7.7%	9.2%
	석 유 화 학	26.4%	20.8%	1.4%	25.0%	31.9%	54.2%	5.6%	5.6%
	자 동 차	13.6%	14.8%	4.9%	24.7%	21.0%	75.3%	3.7%	6.2%
	섬 유 류	16.1%	12.9%	3.2%	25.8%	29.0%	74.2%	3.2%	3.2%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신 재 생 에 너 지	11.1%	7.4%	7.4%	14.8%	25.9%	55.6%	7.4%	0.0%
	자 원 개 발	0.0%	0.0%	0.0%	0.0%	0.0%	100.0%	0.0%	0.0%
	선 박	14.8%	3.7%	7.4%	14.8%	44.4%	48.1%	11.1%	3.7%
	문화컨텐츠	16.7%	8.3%	8.3%	25.0%	16.7%	50.0%	16.7%	8.3%
	해 운	33.3%	0.0%	6.7%	40.0%	6.7%	53.3%	6.7%	13.3%
수출 지역	미국(북미)	19.5%	10.6%	2.4%	22.8%	27.6%	69.1%	4.9%	9.8%
	중 국	21.8%	12.9%	4.0%	27.7%	29.7%	53.5%	5.9%	4.0%
	일 본	24.5%	11.3%	3.8%	22.6%	35.8%	58.5%	9.4%	7.5%
	유 로 존	12.1%	12.1%	12.1%	20.7%	31.0%	60.3%	10.3%	0.0%
	동 남 아	23.9%	9.0%	4.5%	23.9%	31.3%	53.7%	9.0%	4.5%
	중 남 미	54.5%	9.1%	0.0%	9.1%	9.1%	54.5%	27.3%	9.1%
	중 동	22.2%	16.7%	5.6%	11.1%	27.8%	50.0%	11.1%	5.6%

주 : 총 45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0년 7월 6일~10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455개 업체 (대기업 51개, 중소기업 404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팩스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 •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